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금리 (국고채 3년) 2.330 (-0.001)	↑환율 (원·달러) 1416.40 (+16.40) (12일)



트럼프 상호관세
직격탄
대미수출 30% 급락
02

류현진도 에어로스페이스도... 한화 독수리들 飛上

한화그룹, 실적·주가·ETF ‘쌍끌이 상승’

한화에어로株, 올해 151% 꺾충
한화시스템·한화오션도 고공행진
ETF·지주사도 ‘수익 연쇄효과’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12연승 중

“뉴욕증시에 록히드마틴이 있다면
한국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한화 야구만큼 주가도 화끈하다. 21
세기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강남 집팔
아 한화그룹주를 산 투자자 아닐까?”
(한화그룹 주식 관련 A커뮤니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까지... 12일 재계와 한
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거
침없는 상승세다. 코디 폰세·라이언 와
이스부터 문동주까지 한화 이글스의 선
발진의 호투가 쇄도할 때, 한화 본업에
선 방산·조선·ETF까지 주가와 실적이
줄줄이 ‘연승’을 올리고 있다.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한화
그룹 계열사는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다. 이날 증가는 82만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이 37조원
을 넘는 대형주이지만, 올해 주가 상승
률이 151%를 넘는다. 지난 8일에는 90
만원을 찍었다.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
다. 올해 외국인(6255억원)과 기관
(750억원)의 쌍끌이 매수가 주가 상승
을 주도했다.

DB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깜짝 실적’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
가를 8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서재호 연구원은 “폴란드 잔여분과 내
수 양산 사업 타임라인을 고려한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와 내년 연
간 영업이익은 각각 2조5000억원, 2조
7000억원으로 증익 기조가 지속될 것”
이라며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와 탄약
초과 수요량을 고려한다면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중장기 성장 잠재
력도 보유하고 있다. 실적 서프라이즈
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도 외국인 투
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2만2600원 하던 주가는 이날 4만
2950원까지 상승했다. 메리츠증권은
“방산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미국 해군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2만6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상
향 조정했다.

역시 호실적을 이어가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증가는 7만6200원. 한화오션은 올
해 들어서만 주가가 104% 오르는 등 파
죽지세다. 한화오션에 대해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NH투자증권(11만
원)의 정연승 연구원은 “상선 부문의 수
익성 개선 여력, 설비투자를 감안하면
해양, 조선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며 “2025~202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
각 39%, 32%, 25% 상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인 한화는 올해 81%대 급등
세를 보였다. 이날 주가는 4만8900원에
마감했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화가 보유 중인 3개 상장 자회사(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비
전)의 지분 가치가 최근 급증한 영향이
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 미팅
룸에서 열린 ‘K-혁신’ 브라운백 미팅에서 IT 개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
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방문해 순대국밥을 먹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서울 서
대문구 연세대학교를 찾아 학식을 먹으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4·6면〉 /뉴시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2위 정조준... 中·러 재공략 박차

中 전기차 출시·러시아 공장 재매입
판매 회복 땀 폭스바겐 역전 가능성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완성차 판
매 2위 도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자체가 위축됐지만 현대차
·기아는 현지화 전략으로 돌고구를 마
련하고 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2위 폭스바겐그룹과의 격차를 좁히며
바짝 추격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
근 중국과 러시아 시장의 판매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인 중국은 신형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공
장 재매입과 상표권 등록을 통해 복귀
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시장은 현대차그룹의
판매량 확대를 위해 중요한 지역이다.
현대차·기아는 2016년 중국에서 180만
대를 판매하며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엔 20만4573대를 기록했다. 중국에 있
던 5개 공장 중 베이징 1공장(2021년)과
충칭공장(2024년)은 이미 매각했고,
2016년 가동을 시작한 장쑤성 창저우공

장도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21년 연 40만대 가
량 판매하며 현지 점유율 1위를 기록했
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철수했다. 당시
(2023년 말) 현대차는 러시아 상트페테
르부르크 공장을 단돈 100원에 매각했
다. 하지만 2년 내 재매입이 가능한 옵션
을 함께 설정한 덕분에 연내까지 이
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중국과 러시아에
서 판매량을 회복할 경우 2위 폭스바겐
그룹의 판매량을 넘어서는건 시간 문제
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

에서 총 723만1000대를 판매했다. 2위
폭스바겐그룹(902만7000대)과는 180
만대 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양사의
글로벌 판매 감소를 보면 현대차·기아
는 전년 대비 1%가량 감소한 반면 폭
스바겐그룹은 2.3% 감소했다.

현대차·기아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 공
략을 위해 현지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와 중국 베이징차 합작법인 베
이징현대차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2025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전기 S
UV ‘엘렉시오’를 최초로 공개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社告

메트로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이 미래를 선
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
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
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
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
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
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
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연
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에 발맞춰 인터넷, 모바일, 방송,
단말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경제 속보와 금융
정보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뉴 메트로 선언’ 10주년인 올해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를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② 경력 취재기자

■ 모집내용

1. 신입 취재기자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 3차 면접
(1차 실무면접 → 2차 최종면접)

② 모집인원 : 00명

③ 응시자격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5년 8월 졸업 예정
자 응시가능)

2. 경력기자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② 모집인원 : 00명

③ 주요 모집부문

산업, IT 및 경제분야(금융, 증권)
(상기 모집 부문 이외에도 메트로와
함께 미래를 개척할 친취직적인 분은
지원 가능)

④ 응시자격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

② 경력기자의 경우 동종업계 기사
경력 2~7년.

〈3면에 계속〉



메트로 韓줄뉴스



▲이재명 “지난 대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다”

▲한동훈 “김문수, 탄핵 반대 사과 없으면 尹 부부
대리전 하는 모양새”

/사진 뉴시스

▲김문수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 가난하게
하는 것은 진보 아냐”

▲김용태 “당 스스로 대통령 잘못에 책임을 지우
지 못한 과오 인정해야”

▲이준석 “보수, 고쳐 쓸 수 있는 상태 아니다...
단일화 절대 불가”

▲한덕수, 김문수 선대위원장직 고사... “실무적
으로 적절성 논의 필요해”